봉성미셸 Mont Saint-Michel

'서양의 정이'로 불리는 봉성미셸은 평야의 경관과 아름다운 건축양식으로 단연 프랑스 최고의 인기 명소로 손꼽힙니다. 불과 1km 떨어진 이 작은 섬은 해발 80m로 세로이 건설된 교각과 만이 연결되어 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도 지난 천년 동안 그대로된 것처럼 평판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지역(15m)으로, 한 달에 두 번 만조로 인해 고도로 변신하는 봉성미셸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역사
전통에 따르면, 708년 아트랑슈의 주교였던 성 오베르의 세 번째 글자로 나타난 제사로 건설된 벽성매를 수도원은 순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벽성매에 수도원은 10세기 이전에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이 완성되었고, 11세기에는 압박이 점점으로 이르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으로서의 역할이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도원 건물은 시작과 남쪽으로 증축되었으며 13세기에 이르지 노르망디 정복을 업무하던 프랑스의 왕 펨립 오귀스트의 기부로 고딕 양식의 미테베이유가 완성되어 상당히 세련된 2층 건물 형태로 건설되었습니다.

14세기 발달한 벽성매로 수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30년간 보호를 건물 수 있는 고층 건축물들이 틀어졌으며 15세기에 이르면서 화려한 고딕 양식의 대교와 기존의 로마네스크 양식이 대대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건축은 18세기까지 이어져 수도사들의 거주를 위한 건물이 교회의 남쪽 건면에 건설된 것으로 수도원은 완공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제 2세계전을 거치는 동안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수도원은 1874년 사자리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되면서 언론과 대중들로 개방되었으며 1965년 이래 여전히 수도사 공동체의 정신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The Abbey

CENTRE DES MONUMENTS NAITIONAUX

11-16세기에 걸쳐 건설된 교회당은 프랑스의 작적 문화가 지정한 건물이거나 과거를 통한 희생이 가능하며 개방적인 공간 두어 또한 가능합니다. 야외에 늘어 놓인 교회당은 차니 한석의 건축물을 통해 종교적인 삶의 서브트를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일부 건물은 교회당에서 오늘날도 흘리는 기도 소리의 추천공인 예술생활 수도사회에 의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거리 The Street

바밭의 문을 지나면 1851년 가브리엘 드뤼의 의해 건설된 임가 접전보루(루드 라방제)로 인도합니다. 임가의 안에는 아드리에 빌리네로서의 관광명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랜만에 1434년 만든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에트르트에는 지정도 강압이 공저한 풍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타르 문은 오늘날 시내로 사자리 보호구역에 사용되는 공해 건물로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아드리에의 점지 사라이의 점지 도심의 건물들이 들어있어 있고, 교회당은 11세기에 건축을 시작해 17세기에 세례당을 마무리로 완공되었습니다. 골로 수도원에 진드기의 상 마자와 상당 건물의 가장 큰 건물이 거리가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각한 보호사각의 건물은 강력한 그 뒤편에 계단이 마베이유데를 내려드려 있습니다.

먹거리 Gastronomy

물성미에 대해서는 인근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전통 맛의 오름의가 식당의 요리를 먹어 보는 것이 주목할 만한 향신료들을 이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념품 Souvenirs

식당의 정리를 찾아 물성미에 찾아 오는 많은 방문객과 순례자들이 아침의 주식을 건들며 손을 모으는 이곳 상인들의 선물은 중요한 마을에 마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산품으로는 구리소재의 그릇, 도예 및 도자기 제품이 유명합니다.

박물관 Museums

물성미의 마을에 위치한 박물관은 케언의 역사와 고수집물(무기류, 그림, 조각, 시계 등)으로 물성미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고도현상(물성미에 의해 고립된 섬으로 활발하게)에 대한 설명 등의 찾아볼 수 있습니다.